

침묵의 지혜

침묵이 필요한 시대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인들의 말 바꾸기 속세가 날로 현란해 지는 요즘,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한 가치판단이 모호해 질 정도라는 사람이 적지 않다. 정권 말기의 혼란과 그칠 날이 없는 시시비비는 이제 일상이 되었을 정도다. 그래서 침묵이 금이 되는 시절이다.

옛 선사들은 누누이 '말에 떨어지지 말라'고 경계했다. 말에 집착하고 말에 속으면 진리와 그만큼 멀어지기 때문이다. 세 치 혀로 드러나는 말 보다는 마음 깊은 곳에 담겨진 진실을 갈파하라는 가르침은 언제나 유효하다. 말마 스님이 승산의 소림굴에서 9년간 입 다물고 면벽을 한 것은 진리의 심인(心印)이 제대로 전파될 시절인연을 기다린 것이다. 말 보다는 마음으로 전할 인연을 익히기 위한 침묵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유머가서 침묵하지 않았다면 하늘에서 꽃비도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불이(不二)'의 장광설이 오히려 침묵으로 하늘을 진동시킨 것을 생각해 보면 침묵이야말로 우량한 웅변이 아니겠는가?

대선정국이 굳어지면서 불교계를 향한 정치인들의 발길도 분주하고 말도 푸짐하다. 속이 얼마나 찬 말인지 검증할 시간도 없이 새로운 말들이 난무한다. 불교계의 지도자들은 정치인들의 말에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휘황찬란한 말에 맞장구치기 보다는 그 말의 무게를 가늠하고 책임있는 말을 하도록 준엄한 자세를 지켜야 한다. 종단이나 단체의 지도자가 대선공약이라는 명분으로 그럴 듯하게 포장된 말에 떨어지고 집착해 버리면 불교계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진자 들어야 할 말을 못 듣게 된다.

그래서 침묵의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하건 입을 꼭 다물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찬찬히 속을 들여다보는 눈길을 의식할 때 그들의 말은 보다 신중해지고 거짓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임연태(뉴미디어부 부장)

불자 세상보기

작년 9월 11일 뉴욕시의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의 미 국방성이 테러 공격을 받을 때 마침 미국에 가있었다. 뉴욕시에서 100킬로미터쯤 떨어진 곳 리버풀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였는데, 하긴 그랬다. 인간으로서 차마 못할 짓이라는 데에

이슬람권의 입장에서는 물리고 물리다 못해 그런 참혹한 방법을 동원하게 되었다는 점을 동의는 아니지만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교에서조차 그런 식의 이야기는 입도 뻥긋하기 어려운 험악한 분위기였다. 다만 가까이 지내는 미국인들에게 좀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건네 보았다. 다음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을 것이다. 한편, 함께 분노하면서도 직접 당한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생각도 들었다. 인간으로서 차마 하지 못할 짓을 저질렀다면, 그것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토록 치밀하게 계획해서 저질렀다면, 그런 막가는 짓까지도 감행하게 한 어떤 절실한 배경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하긴 미국이 하는 것이 옳은가.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이어서 직접 위협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세계무역센터에서 일하는 이들의 가족, 친지가 많은 등대여서 그네들의 비탄과 분노를 생생하게 접하였다. 테

과연 테러로 '팔' 문제 해결될까

미국이 북핵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폭력으로 폭력을 응징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대신에 정말 좋은 방법이 있다는 얘기였다. 당시 이슬람권 각국의 정부들도 매우 당황해하고 있었다. 자칫하면 이슬람이 뿔방 뿔을 쫓고, 뿔을 문화로 낙인찍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막강한 외교력을 동원하여 이슬람 국가들의 연합회의에서 일카에다를 둘러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 때론 높은 꼬부리고 자고 맞은 높은 발뻎고 잔다는 지혜가 그네들의 심정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막강한 주먹이 있는데 왜 안 쓰냐는 것이다. 그렇게 한방 크게 맞고 난 뒤에 특별히 격양되어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네들의 문화가 워낙 그런 것 같았다. 마구 크게 얘기하자면, 동서양의 차이를 실감하는 대목 가운데 하나였다.

과연 테러리스트 사냥을 통해 테러가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 있을까? 과연 테러를 통해서 미국이 망가지거나 수그러질까? 과연 테러를 통해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될까? 우리 누구나 그 답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런데도 저네들은 서로 갈수록 인간 말종이 되는 길을 치달려가고 있다. 지옥에서 또 만나 계속 싸울 것이니 지옥도 계속 시끄러울 터이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다'는 <범규경>의 구절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조계사 주변 역사문화벨트

조계사(주지 지흥)와 조계사포럼은 24일 오후 2시 문화교육관에서 '서울도심의 역사성 회복-조계사 주변 역사문화벨트 조성'을 주제로 '조계사 주변 역사문화벨트 조성'을 주제로 창간 92주년 기념 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나갑순(서울시사편찬위원회 연구위원), 이희정(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초청

조계사 인근지역은 우정충국, 조계사 등 독특한 문화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인근의 인사동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조계사 일대는 현재 역사 문화적 특성보다는 다분히 개발유도위주의 도시계획 방향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지금과 같이 계속적으로 개발과 보전이라는 사람과 지역주민의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소중한 역사문화환경과 국민의 정신적 생활중심으로서 조계사 인근지역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정신생활 중심지 되도록
이희정(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열린마당

조계사 주변 역사문화벨트

태(상지대 교양과, 사회학)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조계사 사민과 함께 하는 도심 속 열린 사찰,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미리 배포된 세미나 자료 중 조계사 주변 도시계획과 전통과 문화가 조화된 공간모색 부분을 간추려 정리한다.

조계사가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은 불교라는 전통 종교문화의 차원에서 그렇지만, '문화도시 서울'이라는 차원에서 더욱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조계사가 역사의 전통을 살릴 경우 서울은 그 역사에 걸맞게 다양한 종교문화의 공간을 갖게 될 것이다. 서울의 공간 문화가 더욱 다양해진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 논리에 휘둘리는 삭막한 도심에 더 많은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된다. 경제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공간이 도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문화도시 서울'을 위해서는 이런

전통·문화 조화된 공간으로
홍성태(상지대 교양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성실한 대다수에 허탈감 쥐

한탕주의

탐욕에 빠져 해외에 기술을 넘겨버린 전문연구원들의 한탕주의가 위험수위에 달했다. 휴대단말기(PDA) 생산기술 및 무선 모뎀 관련 정보를 중국에 넘긴 혐의로 모 통신기술연구원 대표 등 2명과 신종 휴대전화기의 기술을 빼내 해외업체와 기술개발 계약을 한 전직 전자업체 연구원과 벤처 회사 대표 등 10명이 12일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직업윤리는 간 데 없고 오직 '크게 한 건 해 보겠다'는 사람들의 소행이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491명으로 전년(297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적발하지 못한 경우를 감안한다면 실제 기술유출 건수는 이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한탕주의'는 성실하게 사는 대다수 국민들을 허탈감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를 어지럽힌다. 또한 부패와 권력의 유착이 심화되어 '한탕주의'가 만연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탐욕은 온갖 괴로움의 근본이요 육바라미의 큰 장애요서, 능히 보리심을 태워 없앤다. <육바라미경>
탐욕스런 사람은 재물을 많이 쌓아 놓고도 만족할 줄 몰라서, 무명의 전도심(顛倒心)으로 늘 남의 것을 빼앗을 것만 생각한다. 지혜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건지경>
탐욕이 걱정을 낳고 두려움을 낳나니, 탐욕이 없다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할까. <범규경>
탐욕심 있는 사람에겐 세상의 빈궁이 큰 고통이다. 다른 이에게 재물을 빌리고 재물을 빌린 뒤에는 남의 구박받아 고뇌가 된다. 빛 주인은 찾아와 독촉을 하고 그 때문에 끝내는 결박되나니 그 결박 무겁고 괴롭다. <중야합경>

불자의 생각

문화행사 참가

불자들은 올 가을 평균 1회정도 연극, 뮤지컬 등 문화공연을 관람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붓다뉴스 네티즌 설문조사 결과 총 응답자 36명 가운데 13명(36%)이 1번, 7명(19%)이 2번, 2명(6%)이 1명(3%)이 4번 이상 문화공연을 관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획이 없다는 의견도 13명(36%)이나 됐다. 문화공연을 선택할때의 가장 큰 기준점이 무엇이라는 질문에는 28명(78%)이 작품성, 4명(11%)이 각각 대중적인 지도, 종교교과 답변했다. 김두식 기자

빈도	비율
1번	36.1%
2번	19.4%
3번	5.6%
4번 이상	2.8%
계획이 없다	36.1%

올가을 "한번은 문화공연 관람" 36%

도시계획 관리문제 심도있게 검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에 바탕 한 도시계획의 세부적인 관리방향도 개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조계사일대의 도시계획적 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계사를 위시한 지역전체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개선요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또 조계사일대의 우준히 역사 문화적 가치를 발굴해 내고, 지역에서의 도시계획적 관리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개선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자비정신·공사상 원용 해야

공간이 더욱 더 늘어나야 한다.

조계사가 도심의 역사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첫째,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아무런 위축감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이어야 한다. 둘째, '생태 공간'이 되어야 한다. 불교의 자비 정신과 공의 사상은 이런 서울의 도시를 '살림의 공간'으로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조계사가 산사의 정신과 정취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면, 서울의 도시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전통과 문화가 조화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종 가시오가피

■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희귀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훈구 대표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100%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TEL : (02)2272-4900

(주) 한국자연과학 www.ogapland.co.kr

조각작품으로 안볼 안볼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雪山白玉佛

고불총림법장 서울 큰 스님 / 추천서

野外法壇 16羅漢像